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정당 불신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양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 양당 지지층조차 절반이 넘는다. ‘대통령 당으로의 거듭나기와 주류 세력 교체’로 바뀔 지만 국민은 냉담하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여론조사 92개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 흐름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 하락하여 9주차부터 30% 중 후반대를 유지한다. 민주당은 11주차 이후 국민의힘에 계속 앞선다. 최근 10개 조사로 좀처럼보면 민주당이 7:3으로 앞서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민주당 지지율은 최고 49.3% 최저 33%, 국민의힘도 최고 38.4% 최저 32.5%를 기록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 ‘반사 이익의 정치는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지지를 철회한 사람 중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12.4%다. 지지 이탈층의 29.5%는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낮은 지지율의 반사적 이익을 바라다면 바보 같은 일이다. 누가 비전과 콘텐츠를 갖고 실력을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어느 쪽이든 열려 있는 신당 창당론이 주목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뚝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실시되는 민주당은 비명(非明)계의 선택이 관심이다. 핵심은 ‘팬덤 정당 대 대중 정당’의 싸움이다. 소수의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행동가인 강성 지지자들의 확대된 영향력으로 유권자들과 더욱 괴리된 정당으로 변화하는 부정적 결과의 우려다. ‘위명(明) 설법’ 주장은 “왜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 놓고, 우리를 지키는 성의 뒷문을 활짝 열어 우리 동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여지를 열어놓느냐”는 반론에 직면한다. “닥치고 투쟁” 기조의 민주당은 곧 어떻게 중도층을 끌어안을지 시험대에 오른다. ‘이준석 갈등’은 여론 분화의 뇌관이다. ‘좌파 세력 외에 정권교체를 갈망했거나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당의 인사 등을 포함한 국민통합형 재창당’ 주장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을 구축을 위해 기존 여권에 일부 야권 인사까지 포함하는 시나리오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집권 여당의 ‘집안싸움’은 이 중적이다. 겉으로는 ‘당내 주도권 쟁탈전’이다. 이면에는 변화가 요구되는 집권당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 우리 정당과 정당 정치의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될 싸움이기도 하다. 당내 주도권 쟁탈전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의 당으로 거듭나기’라는 역사의 반복이다.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처럼 대통령은 자신의 당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명박과 문재인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 친위 비대위’라는 평가를 보면 권력의 결심

은 확보해 보인다. 문제는 ‘신뢰 위기의 대통령’이 되어 가는 마당에 최악의 경우 ‘여짜다 대통령’이라는 무능 프레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다. 집권 여당 집안싸움의 핵심은 ‘체질적 충성 여당이냐 대통령 결사옹위의 집권 여당’ 대 ‘파시스트적·조직적 심적 그리고 일방주의적 정당’의 논란이다. 여론으로 보면 ‘권위주의적 권력 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 정치권’과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충성하는 정치’의 대결로 바뀌는 모습이다. 여의도에선 “당 구성원의 핵심인 의원 중 현안이 터지면 율바른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가 없다”는 탄식이 나온다. “잔란했던 청년 정치의 막을 내리는 것”이라거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아니면 2선 후퇴다. 뺏기는 권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권력을 민심을 못 이긴다. 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게 제대로 수용하는지,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엘리트 중심의 정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유권자의 필요에 부응하는지, 기존의 정당체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국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견제와 협력의 당정 관계와 정당의 민주적 개혁 및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 요구도 마찬가지다. 결국 윤 대통령의 묘이다. “정치인 발언에 입장 표명한 적 없다”라는 말은 상식적이지 않다. 독심과 배짱, 자기 확신이 윤 대통령의 강점이나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개혁과 포용력으로 국민에게 품이 넓은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社說

민주당 ‘호남 대전’ 미래·혁신 경쟁 보여 주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전북 경선을 앞두고 당권 및 최고위원 주자들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호남은 ‘진보 진영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큰 데다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의 36%나 되고, 경선 결과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전북에서, 21일에는 광주·전남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호남권 경선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앞서 17-19일엔 전북 권리당원 온라인·ARS 투표가, 18-20일엔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가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박용진 후보 양자 구도로 압축된 당권 경쟁 구도에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그동안 12개 시도에서 치러진 권리당원 득표율은 이 후보 78.65%, 박 후보는 21.35%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호남 대전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 승리를 확정 짓겠다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전북 강수 출신의 박 후보는 반전의 계

기를 만들겠다고 버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저조한 투표율로 흥행이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재명(여)치고 당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이 투표 결과로 확인되면서 열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담은 당헌 제80조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당 혁신과 정치 개혁, 민심 회복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호남 대전이 최고위원 경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당선권인 5위 이내에 친명(친 이재명) 주자가 네 명이나 포진한 가운데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와 전북이 고향인 윤영찬 후보의 선전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특정 계파 일색이 아니라 다양성과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권·최고위원 주자들은 이번 호남 대전에서 그에 걸맞은 미래 비전과 쇄신 방안을 놓고 경쟁하길 바란다.

스토킹 범죄 전자발찌 부착 실효 거두려면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 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가 그동안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광주 경찰의 112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는 총 2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세 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확대 적용될 경우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현 관리 인원으로는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광주 보호관찰소 194명, 목포 지소 50명, 해남 지소 2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847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그치고 있다. 1인당 관리 인원이 17.3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족한 관리 인력 탓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최근 5년간 303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스토킹 범죄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보호관찰 담당자들의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동사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어떤 물질이나 재화를 향한 마음과 실질적인 행동을 이끄는 동기 부여의 말로 사용된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정도를 넘어서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랑한다”는 서로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엄청난 말이다. 그러나 전혀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한쪽만의 사랑은 상호적 상승과 행복 작용은 없고 소유와 갈등 그리고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싸움만 남을 뿐이다. “좋아한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 자기 삶을 행복으로 이끌려는 긍정적 힘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자신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행복과는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신의 삶을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뿐이다. 만약에 그 좋아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대중이 좋아하는 것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추구하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착각이며 진정한 자신의

소유와 공유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는 사라지고 가면으로 가려진 가짜의 삶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타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는 그 마음은 이미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은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서로를 율아매이게 하지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양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로 그 대상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소유하는 그 순간 상호적인 작용은 더 이상 없고 자신이 소유하고, 그 소유를 통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크지 않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같은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를 위하고 모두를 위하는 지향이라면 매우 긍정적인 잠재력으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사유화하려는 이기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만다. 지혜는 서로를 살게 하지만, 어리석음은 서로를 파멸로 이끈다. 인간관계가 그렇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그렇다. 공유하지 않는 소유는 독점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탐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모든 관계성이 무너지고 서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돈이면 못할 것 없는 세상과 자연을 파괴하려는 우리의 탐욕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고 좋아해서 가지려는 소유는 타자와 공유하지 않게 되며 결국 자기만을 위한 탐욕일 뿐이다. 자유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인데 소유하여 매게 되면 자유는 온데간데없고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 사람·물질·명예·권력의 노예가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랑하고 좋아하여 가장 높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다. 소유하며 쌓아진 것으로 내 인간 존재가 높은 지위를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나누어 주고 내어 주면서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어떤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생명과 삶을 위해 피신해 오는 난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셨다. 이주민과 난민은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소유를 통해 매어 있는 삶보다 공유하면서 서로를 자유롭게 살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유의 삶과 공유의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고

무모하기를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7년 전, 겁 없이 전업 작가를 꿈꾸며 하던 일을 접었다. 문득 휘몰아친 동화가 나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면서 발생한 참사였다.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기세 좋게 큰소리는 쳤지만, 사실 대책은 없었다. 모아 놓은 돈은 커녕 다달이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고 뚜렷한 좌표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투명했지만 다만 선포한 것은 ‘쓰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였다. 전업 작가가 된 후의 삶은 처절했다. ‘쓰고 싶다’는 마음이 ‘써야만 한다’로 바뀌면서 날마다 커피잔에 시럽 대신 젤라틴을 타서 마셨다. 하루종일 어두운 카페에 들어앉아 있다 보니 비타민D가 결핍되어 안색은 파리해졌다. 그런 노력에 불구하고 생활은 점점 위태로워졌고 불면과 불안으로 정신과 약까지 처방을 받아야 했다. 지금도 가끔 주변인에게 묻는 말이 있다. “내가 전업 작가 처해 일 년 동안 글 써서 번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정답을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누가 얼마를 말하던 그 이하였다. 연봉 3만 원, 믿을 수 없었지만 1년 동안 글 써서 번 돈은 고작 3만 원이었다. 이것이 대부분 작가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이다. 현재 나는 작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20여권의 책을 출간하였지만, 여전히 생활은 불안정하다. 강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세로만 생활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물질이 아닌 무형의 창조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

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많은 예술인들이 얼마나 더 잔혹한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회의와 갈등으로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글쟁이여. 허구한 날 머리를 갈래 찢듯 쥐어짜고 사나라고 얼마나 고달프겠냐.” 친정 엄마는 글 쓰는 말이 안쓰러우면서도 못마땅하기 그지없다. 다른 집 딸들처럼 백화점 쇼핑이나 하고 외국으로 여행이나 다니는 딸자조 왜 살지 못하는지 혀를 끌끌 찬다. 작기도 직업이다. 직업이니 만큼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물론 절실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부의 탓만으론 돌리며 많은 사람들은 방관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얼마나 예술을 확대하고 있는 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적이다. 무단으로 도용되는 미술 작품들과 불법 복제되어 인터넷에 걸리는 음악과 저작권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당당한 문화인들이 범람하는 현실은 어찌해야 하는가. 다행히 내 주위에는 아직도 예술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 대신, 무모하고 남루한 삶에 대한 도전을 꿈꾸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도 쭉쭉 무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무모함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주시길 간절히 희망한다. 꿈꾸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파이팅을 외친다.

無等鼓

어떤 사물이나 특정 현상에 대한 이름이 붙여질 때는 대부분 그것의 특징이나 발현 장소, 발견자 또는 발명자의 이름에서 따오는 것이 상례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명명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질병에 관한 명칭은 자칫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겨 논란이 일기도 한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질병명이 부정적인 특성을 함축한 단어로 명명될 경우 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질병명을 변경하는 것은 실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문둥

을 거쳐 대한의사회학회가 결정된 용어이다. 한자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의 치매에 대한 개명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의 명칭과 관련한 논란은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생 초기 ‘중국 바이러스’나 ‘우한 바이러스’로 불렸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이름이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공식 명칭을 만들었다. 최근 WHO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차별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원숭이 두창의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실험실 병으로 불렸던 나병은 질병 균 발견자의 이름을 따 ‘한센병’으로 바뀌었고, 지랄병으로 불렸던 간질이 ‘뇌전증’으로 개명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적 낙인 성격이 가장 강한 용어로 지적됐던 ‘정신분열병’은 10여 년 전 ‘조현병’으로 변경됐다.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정상적으로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됐다. 전문가 여론 수렴 /채희총 정치담당 편집국장chae@

질병 명칭 논란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variou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addresses for different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